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365일 24시간 잠들지 않고 시민을 지키는 눈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지난 7월 어느 새벽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우산도 없이 폭우를 맞으며 배회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CCTV를 통해 포착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이었다. 야간근무 중이던 CCTV 관제요원은 관할 경찰서에 신속히 실시간 상황전파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어르신의 신변을 확보한 덕분에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이처럼 시민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는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를 살펴보자.

글 자료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는 어떤 곳?

고양시 시민안전센터는 지난 2016년 3월 2일 CCTV 통합관제센터로 개소한 이래 37명의 관제요원과 5명의 공무원, 경찰관, 시스템유지 보수요원 등 총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65일 24시간 고양시 전 지역에 설치된 8,000여 대의 CCTV를 관제하며 상황전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범죄 및 재난재해, 국토방위 등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와 협력하여 CCTV통합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활용한다.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

고양시 시민안전센터의 대표적 주인공은 바로 CCTV 관제요원이다. 관제요원들은 고양시 관내 시설의 안전과 집중감시구역의 범죄예방, 시민안전보호를 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민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인 최정숙 관제요원은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범죄예방은 물론 실종, 화재, 119응급상황 등 시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전방위적으로 면밀히 관찰한다. “범죄 발생 우려 시 적절한 계도방송과 집중 모니터링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된 사람을 가족 품에 인계하게 될 경우에는 작게나마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보람을 느끼며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도 많다. “작년 11월 어느 늦은 밤 백마역 인근에서 이상행동을 보이며 길을 잃고 헤매는 지적장애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 가족 품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을 준 적이 있어요. 올해 5월에는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용현초교

앞 노상에서 이상행동을 하며 질러거리며 넘어지려고 하는 구조대상자를 발견 112 신고 조치로 안전하게 보호자에 인계했습니다.” 최정숙 관제사는 사건 해결이나 시민안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 받을 때나 가족들도 고생한다며 ‘엄마 최고’라는 말을 해줄 때면 정말 일에 대한 자부심과 큰 보람을 느낍니다.”

시민안전센터가 함께하는 안전한 고양

오늘도 고양시 시민안전센터 CCTV 관제요원들은 안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소형주택 밀집 지역, 뒷골목, 청소년 등하갯길, 여성안심귀갓길,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쉼없이 움직인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서 CCTV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시민의 안전사고와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시민 누구나 안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작게나마 이바지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안전센터 영상 보러가기



CCTV 관제요원 최정숙 관제사(사진 출처: 고양시 유튜브)



시민의 든든한 안전지킴이 '고양시 시민안전센터(사진 출처: 고양시 유튜브)